대한민국 블록체인 기술 및 디지털 자산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GBC | ripple | OXFORD METRICA

지비시코리아 소개

지비시코리아는 세계 최초로 M&A 플랫폼(GMAP)을 오픈,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소자본으로도 누구나 투자를 할 수 있는 M&A플랫폼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으며 국내외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비시코리아는 자사가 보유한 가상자산인 UCX를 활용하여 M&A와 기타 대규모 투자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리플 소개

리플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어디서나, 누구든지 금융 결제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꾸준히 성장해온 리플의 글로벌 네트워크(RippleNet)에 합류한 전세계 금융기관들은 어디에서나 즉각적이고 안정적으로 다양한 고객의 국제간 결제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은행과 결제를 필요로 하는 업체는 디지털 자산인 XRP를 사용하여 비용을 더욱 절감하고 새로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뉴욕, 런던, 뭄바이, 싱가포르, 상파울루, 레이캬비크 및 두바이에 오피스를 두고 있는 리플은 전 세계에 수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옥스포드 메트리카 소개

옥스포드 메트리카는 기업의 이사회에 전략적인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글로벌 자문 회사입니다. 다년간의 리스크 파악, 재무 성과 연구 등, 축적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통계 분석과 지수 산출을 포함한 독창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및 성과분석, 인수합병 (M&A)의 실사 포함, 고도의 맞춤형 서비스를 은행, 보험사, 자산 운영사 등의 이사회에 제공합니다.

대한민국 블록체인 기술 및 디지털 자산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GBC | ripple | OXFORD METRICA

목 차

개요 – 새롭게 떠오르는 블록체인 생태계

로리 나이트 박사는 현재 옥스포드 메트리카의 회장이자 존템플턴 재단의 투자 위원회 의장이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경영대학인 템플턴 칼리지의 학장을 지냈으며, 스위스 중앙은행인 슈바이제리셰 국립은행 Schweizerische Nationalbank (SNB)의 부사장을 역임하였다.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보다 접근성이 높고 투명하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생태계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가치는 개인 간에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 형태로 안전하게 전달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거래방식은 현재의 투명하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드는 세계 금융 시스템을 개선시킬 것입니다. 개개인은 현재 접하지 못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상품, 서비스, 산업들이 등장하여 실물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 특히 신흥국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킬 것입니다.

국가 마다 기술개발을 관리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규제 당국은 거시적으로 보기보다는 미시적으로 보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규제 기관 마다 다루는 시스템의 요소가 다릅니다. 우리는 현재의 규제 시스템으로 인하여 혁신이 제약 받지 않고 활발해져서 사회의 이익이 되도록, 명확하고 투명하며 스마트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제들은 좋은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혁신을 저해하는 현실적 위험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 백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간략한 입문서로서 이를 통해 신흥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를 설명하고, 또한 이러한 요소의 계층 구조를 제시할 것입니다. 블록체인 생태계의 구성도에 대한 설명 및 실제 사례와 사용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디지털 자산 분류법을 제안 합니다. 국내 주요 금융기관의 고위 경영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제시해 신기술 수용 의지를 가늠케 하려 합니다.

본 백서는 새로운 생태계의 확장을 진작시키며 동시에 혁신을 저해하는 숨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규제 확실성과 소비자의 보호장치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일련의 정책 제언으로 마무리 할 것입니다.

리플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의 내재된 힘을 이용해 국경 간의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혁신을 이뤄냈으며 지비시코리아는 소자본 투자자들도 정교한 금융상품에 참여할 수 있는 M&A 플랫폼을 개발하였는 바, 본 백서를 통해 리플과 지비시코리아가 파트너로서 상호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옥스포드 메트리카는 이러한 높은 수준의 리플 및 지비시코리와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리플과 지비시코리아의 동료들이 이 프로젝트를 지지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설문조사에 참여한 각 분야의 많은 고위관계자, 임원들에게 매우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독자 분들께서 이 중요한 백서를 읽고 관심과 한줄기 빛과 같은 영감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리 나이트 박사 / Dr. Rory Knight
회장 / Chairman
옥스포드 메트리카 / Oxford Metrica

축사

권오규 박사는 현대자동차 정몽구 재단 이사장이며, 전 대한민국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근무 하였으며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하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 태국 바트화에 이은 말레이시아 링깃, 인도네시아 루피아, 홍콩 달러 등의 폭락으로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어렵게 버텨오던 중, 1997년 마침내 한국 금융시장이 폭락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글로벌 금융 불안이 촉발되었습니다. 국가의 재정적 안정을 우려하여 재임 기간 중 한국의 금융 안전망을 마련하게 된 것은 나중에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서운 속도의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한국민과 세계인을 위해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지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블록체인 업계의 주요 참여자인 리플과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플랫폼을 개발한 지비시코리아와 글로벌 투자자문사인 옥스포드 메트리카가 함께 협력하여 전 세계 감독 기관에 규제에 대한 길을 이 백서를 통해 제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를 통하여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정책 개발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전례 없는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리플의 리더십과 옥스포드 메트리카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비시코리아의 독특한 M&A 플랫폼이 지금까지 없었던 혁신을 일으킬 것이며 아울러 전 세계의 보통 사람들에게 확실한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 시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권오규/Dr. Okyu Kwon/
의장 /Chairman
현대자동차 정몽규재단 /The Hyundai Motor Chung Mong-Koo Foundation/

리플 서문

브룩스 엔트위슬은 Ripple의 APAC 및 MENA의 부사장 겸 상무이사이다. 리플에 입사하기 전에는 APAC, EMEA, 중남미 지역을 담당하는 우버(Uber)의 최고비지니스 책임자(CBO)로 근무했다. 이전에는 인도와 동남아시아 중심의 사모펀드 및 부동산 투자 회사인 에버스톤 캐피털의 CEO를 역임한 바 있다. 2014년 에버스톤에 입사하기 전, 브룩스는 골드만 삭스에서 아시아 15년을 포함해 22년을 파트너로 활동했다. 가장 최근에는 골드만삭스 싱가포르의 CEO이자 골드만삭스 남동아시아 회장을 역임하였다. 이에 앞서 골드만삭스 인디아의 CEO 겸 창업자로 5년 동안 회사를 설립하여 이끌어 왔었고, 골드만삭스 아시아 하이테크 그룹의 설립자 겸 공동 대표를 역임하기도 하였다. 경력 초기에 브룩스는 UNTAC(United Nations Transitional Authority in Cambodia)에서 지역 선거 감독관을 역임했습니다. 브룩스는 다트머스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하버드 비지니스 스쿨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Aspen Institute, EmancipAction, Dartmouth College 및 Young Life의 John Sloan Dickey 국제 협력 센터의 이사이다.

라울 아드바니는 리플의 APAC 정책 이사이다.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는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의 책임 있는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를 지원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규제 기관 및 정책 입안자들과 리플의 참여 및 옹호를 주도하고 있다. 리플에 합류하기 전에 아드바니는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12년 이상 일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국제스왑딜러협회(ISDA - International Swaps & Derivatives Association)에서 아시아 태평양 공공 정책 책임자로 근무했다. 이전에 아드바니는 뭄바이, 싱가포르 및 홍콩에서 브룸버그와 함께 상장 및 장외 파생 상품에 대한 평가, 비즈니스 개발 및 판매 전반에 걸쳐 여러 역할을 수행했다. 아드바니는 싱가포르 리콴유(Lee Kuan Yew School of Public Policy) 공공정책학교에서 공공 정책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리플은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의 힘을 통해 원활하고 즉각적인 국경간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개인과 기업에게 보다 더 포괄적인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혁신적인 경로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에서 정보를 이동시키는 것처럼 가치를 이동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활용 사례가 개발되었고, 새로운 시장의 개방으로 이어졌습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인 XRP를 활용하는 리플넷(RippleNet)과 같은 솔루션은 실시간 결제를 가능하게 하고 결제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의 투명성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글로벌 결제 과정을 대체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와 실물 경제에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새롭게 도입될 정책 영향의 전체 규모와 범위를 이해하기 어렵고 미래 추세를 예측하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 신흥 생태계는 경제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하지만 또한 새로운 형태의 위험을 수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도입 될 서비스 및 제품은 새로운 유형의 조직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의 기술적, 경제적 특성은 스마트한 규제를 필요로 하며 규제 기관과 정책 입안자는 이 기술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충분한 보호를 보장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는 것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리플은 진화하는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생태계와 새로운 활용 사례를 이해하여 한국내의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추천하기 위해 발행하는 이번 백서를 옥스퍼드 메트리카 및 지비시코리아와 제휴하여 함께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백서의 제안이 규제의 확실성과 안전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미래 지향적이고 유연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데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백서가 이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한 담론의 유용한 플랫폼이 되어 한국에서 블록체인 생태계가 번창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Brooks Entwistle

브룩스 엔트위슬/ Brooks Entwistle
부사장, 리플 아시아 태평양 및 중동 지역 총괄
/ VP & Managing Director APAC & MENA
Ripple

라울 아드바니/Rahul Advani
리플 아시아 태평양 정책 담당 이사
/ Policy Director APAC
Ripple

지비시코리아 서문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한 핵심 패러다임 중 하나는 법정화폐를 디지털 가치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간 계속되는 투자정보의 비대칭성과 전통적 금융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개인투자자들이 고수익의 대규모 투자기회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지비시코리아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활용하여 보안을 보장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M&A 거래와 같은 주요 투자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GMAP(Global M&A Platform)을 개발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그 과정을 통해 생성된 새로운 가치를 모든 GMAP 투자자와 공유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지비시코리아는 자산운영 플랫폼인 GAMP(Global Asset Management Platform)를 개발 중이며, DeFi환경과 NFT 거래를 통합하여 GMAP의 M&A 프로젝트 과정에서 유동화 된 자산 간의 거래도 원활하게 할 것입니다. GMAP은 세계 어디서나, 누구든지 투자에 참여하여 여기서 창출된 새로운 가치를 모든 투자자가 공유하는 목표를 가지고 설계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로 얻어진 그 결실을 공유하는 분산 경제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지털화 된 생태계 안에서 인류의 거대한 도약을 향한 새로운 길을 점진적으로 열어줄 것입니다.

지비시코리아는 이번 백서를 발행 하면서 리플, 옥스포드 메트리카와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이 백서가 국내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규제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의 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국이 이 새로운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GMAP과 GAMP를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한 행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전례 없는 기회의 시대에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종성회장(Steve Lee)은 지비시코리아의 설립자이자 회장이다. 금융시장에서 30여년간 경력을 쌓으며 누적 가치 10억 달러가 넘는 수많은 M&A 거래를 성사시켰다. 그는 또한 특별한 사업 감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 투자 자문 회사의 이사회 의장을 역임하였다. 한국 M&A 시장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될 것을 내다 보고, 국내 기업 창업주 세대가 은퇴한 이후 젊은 세대가 주축이 되는 M&A 시장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GMAP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 종 성 / Steve Lee
회장 / Chairman
지비시코리아 설립자 / Founder of GBC Korea

발전하는 블록체인 분야의 기본 요소

블록체인 부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생태계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그간 새로운 분산형 생태계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그에 꼭 필요한 많은 지원이 이미 있어 왔습니다. 분산화 된 생태계가 토큰화되어 성장함으로써 새롭고 혁신적인 디지털 솔루션의 진화가 가능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광범위한 소비자 그룹이 효율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융 중개 기관의 역할이 새롭게 정의되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이와 동시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술 발전과 분산된 생태계에서 새로운 회사, 상품 및 시장이 출현함으로써 규제 기관은 풀어야할 많은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규제 기관은 규제의 확실성과 안전 장치를 제공하는 동시에 미래 지향적이고 유연한 프레임워크를 갖추는 것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찾아야만 합니다. 선의의 규제라고 하더라도 혁신을 저해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는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지나치게 신중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혁신을 방해할 수 있는 반면 명확한 규제가 없으면 불확실성과 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생태계의 주요 특징에 대해 먼저 정의하고 정책 수립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입니다. 즉, 이러한 요소들과 이들의 상호의존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역설적으로, 규제가 명확하지 못하면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기 어려워서 시장 참여자들이 더 유리한 다른 분야로 이동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여 투자자와 소비자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확실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스마트 규제 자체가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에 그림 1에서 피라미드로 표시된 계층 구조를 형성하는 5가지 중요한 요소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무엇인가요?

- 블록체인 기술(분산 원장 기술이라고도 함)에 대한 많은 문헌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검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백서에서 언급하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기본 설명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
- 기초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자산의 출처를 기록하는 분산된 분산형 원장으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암호화된 데이터 블록은 서로 체인처럼 연결되어(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용어가 사용 됨) 데이터에 대한 연대순의 단일 진실 소스를 형성합니다.
- 이러한 방식으로 원장의 데이터를 분산하면 중앙 행위자가 데이터를 소유, 제어 또는 조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설계의 본질상 블록체인의 데이터는 조작될 수 없습니다.
- 블록체인 네트워크에는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프라이빗 블록체인 네트워크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퍼블릭 블록체인은 누구나 접속하여 참여할 수 있으나 가장 큰 단점은 계산량이 너무나 방대하고 거래의 비밀 유지가 안되며 그 보안 또한 약하다는 것입니다.
- 반면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한 조직(또는 여러 조직의 컨소시엄)에 의해 만들어진 네트워크로서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통제합니다. 반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참가자들의 신뢰와 확신을 크게 높입니다.
- 두 가지 유형의 블록체인 둘 다 원장은 참가자 모두에게 배포되고 동시에 모두에게 업데이트 됩니다.

1. 디지털 자산 심층 시장
2. 자율분산원장기술(DLT) (블록체인)
3. 플랫폼 인프라 구성
4. 분산금융(DeFi) 상품
5. 스마트 규제

디지털 자산 심층 시장

블록체인 생태계의 구성 요소는 자체의 고유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등 디지털 자산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에는 디지털 화폐, 스테이블 코인, 대체불가 토큰(NFT),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등 다양한 토큰이 있습니다. 이 생태계 계층에는 코인이 작동할 수 있도록 채굴, 보안 및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 에이전트가 참여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의 중요한 특징은 암호화폐의 다양성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이는 최종 사용자의 요구 사항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 사례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높은 수준의 금융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유기적 개발이 필요한 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분류법을 본 논문의 뒷부분에 제안합니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디지털 자산 교환을 위한 유동성을 제공하여 토큰과 토큰 간의 교환 및 토큰과 법정 화폐의 교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거래소가 효율적인 작동하기 위해서는 생태계가 적절히 기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491[1]개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 및 플랫폼이 조직되어 있으며, 그 가치는 수 조 달러에 이르며 시장에 필수적인 유동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래소는 AML/CFT(자금 세탁 방지/테러 자금 조달 방지) 조치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적절한 보호 장치와 경고가 필요합니다.

2020년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정 금융정보법")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 되었습니다.[2]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서는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는 한국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등록하여야 하며 의무적으로 가상 자산 서비스와 관련된 AML/CFT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정 금융 정보법 개정의 정책적 의도는 가상 자산 및 중개자에 대한 AML/CFT 위험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의 시행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첫째, 금융정보분석원에 등록하려면 VASP가 고객과의 금융 거래를 위한 실명 확인된 은행 계좌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또한 VASP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매우 엄격하여 대부분의 기존 거래소는 두 가지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현재까지 이 규정으로 인하여 원화마켓을 제공할 수 있는 거래소는 200여개 에서 4개로 줄었으며 나머지 190여개의 거래소 가운데 39개는 ISMS 인증을 취득하였으나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여 토큰 간의 거래 영업만 하고 있습니다.[3] 투자자 보호와 투명성 개선을 위한 선의의 개입이 국내 생태계 발전에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 23페이지의 각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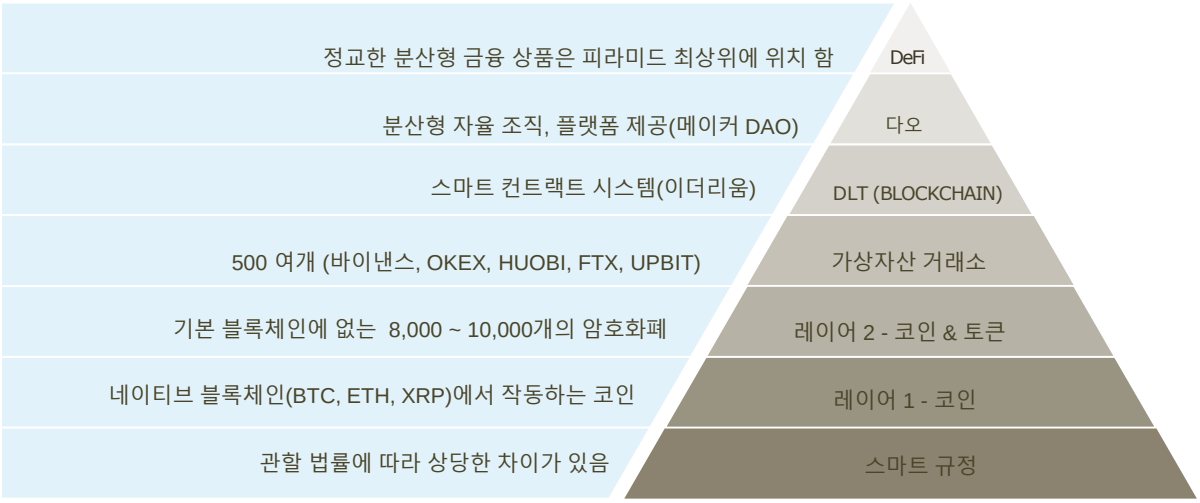


그림 1. 블록체인 생태계 계층 구조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인한 또 다른 예상치 못한 결과는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혁신이 질식 당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이는 "가상 자산"의 정의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 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함"으로서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도 비슷하게 광범위 한데, 이는 "구매 및 판매, 교환 및 양도, 보관 및 관리에 종사하는 가상 자산 거래 서비스 제공자, 가상 자산 보관 및 관리 서비스 제공자 및 가상 자산 디지털 지갑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합니다.[4] 리스크에 민감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부재는 솔루션에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는 모든 기업이 KoFIU에 등록 및 보고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해당 부분의 혁신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유동성을 지원하고 디지털 자산이 주류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러한 시장에 금융 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의 블록체인 생태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명확성이 필수적입니다. 금융 기관이 규제되지 않는 기술의 개발 및 투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 및 관련 활동의 위험이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자율 분산원장 기술(블록체인)

다음 단계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프라이빗 및 퍼블릭 블록체인의 개발이 필요한 바, 분산 원장 기술은 그 자체가 개별 디지털 자산의 DNA입니다. 또한 다양한 블록체인은 여러 다른 서비스를 위한 작업 플랫폼을 제공하는 상위 수준의 유기체 역할을 합니다. 이 자율 분산원장 기술 계층은 국경 간 지불 시스템과 많은 네오 뱅킹 서비스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리플넷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 중 하나로서 금융 기관 및 최종 이용자들에게 업스트림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중요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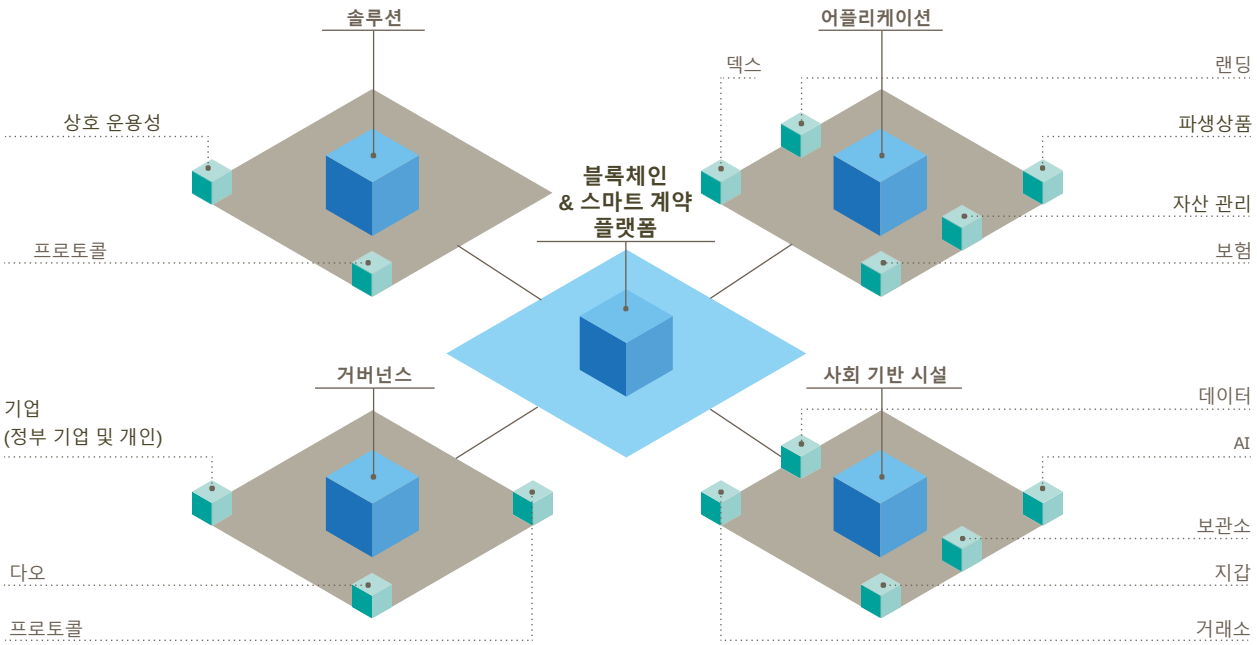


그림 2. 블록체인 생태계 구조도

플랫폼 인프라 구성

여러 사람들이 DeF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새로운 단계의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의 출현이 중요합니다. 스테이블코인과 대출 플랫폼을 제공하는 MakerDao가 그 예입니다. 이러한 플랫폼들은 특정 수요처에 주로 사용 되며, 이 플랫폼들은 추가 DeFi 개발을 위한 필수 구성 요소로서 기술 및 서비스 업스트림 계층에 의존합니다.

분산금융 (DeFi) 상품

점점 더 정교한 DeFi 상품들이 이제 피라미드 계층의 더 많은 층에 추가되면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비시코리아의 GMAP과 같은 상위 플랫폼은 주로 기관들이 투자하는 대형 M&A 거래에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M&A 플랫폼은 자체적으로 발행한 코인인 UCX와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등의 다른 디지털 자산을 자연스럽게 사용함으로써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이 작동되게 합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계층적으로 상위에서 작동하는 서비스로서 더 상위계층과 연계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 입니다.

스마트 규제

본 백서의 후반부에 몇 몇 나라의 이 분야의 규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검토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스마트 규제의 일반적인 특징만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정책 권장 사항은 본 백서의 끝에서 두 번째 섹션에서 제언하겠습니다. 규제기관들은 이 분야의 규제를 위하여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원자적 접근법보다는 총체적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기존의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는 경우, 규제가 부족하면 규제가 지나친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그 산업분야는 사기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규제 기관과 정책 입안자들은 충분한 안전 조치를 보장하는 정책과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 사이에 정교한 균형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규제의 명확성과 안전장치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하는 동시에 미래 지향적이고 유연한 프레임워크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지나치게 신중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반면 명확한 규제가 없으면 불확실성과 혼돈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발전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유연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또한 스마트 규제는 특정기술에 구애 받지 않아야 하며 특정 기술만을 명시적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지지해서도 안 됩니다. 즉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는 금융서비스이기 때문에 멋진 틀을 갖추어 사용중인 기존의 금융서비스와 다르게 취급되어서는 안되며 모든 기술이 동등하게 취급되는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진전은 많은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통화(CBDC)를 발행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CBDC가 채택되려면 민간부문과 상호운용성의 확보가 필수적 이므로 상호운용성이 보장되어야만 CBDC가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CBDC에 대해서는 아래에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 은행 디지털 통화(CBDCS)

CBDC는 중앙은행의 부채를 나타내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통화입니다. CBDC는 소매용(가정 및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금과 동등함)과 도매용 (금융 기관만 접근 가능, 기존 중앙 은행 결제 계좌와 유사)으로 구분됩니다.

화폐와 지불수단을 계속 발전시키는 임무의 일환으로 전 세계의 중앙 은행들은 CBDC의 일부 형태를 검토, 테스트 및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CBDC 가운데 정부가 보장하는 민간 암호화폐 버전이 활성화되고 있는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RIPLE 설문 조사의 주요 결과:

많은 사람들이 COVID-19로 인해 온라인 쇼핑과 비대면 결제 옵션을 선택함에 따라 현금 사용 감소 추세가 가속화 되었습니다.

미국 소비자의 ¼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시작된 이후 현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북이 자체 디지털 코인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통적인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잠재적으로 전 세계 24억 명의 사용자가 페이스북이 만든 통화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결제 시스템 테스트는 잠재적으로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글로벌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를 위협합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CBDC의 출시 날짜를 2022년 2월로 제시 하였습니다.

정부가 시민들, 특히 은행거래를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거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은행 계좌가 없는 인구 수는 17억 명 입니다.

CBDC의 부상

금융 기관들은 블록체인 기술의 힘을 활용하여 글로벌 결제를 원활하고 즉각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각 중앙 은행 또한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특정 시장에서 디지털 통화를 활용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존 결제 인프라의 한계 극복, 금융 통합 촉진, 경쟁 촉진 또는 혁신 조성 등 주요 목표의 성격에 따라 각 CBDC의 접근 방식과 기술이 좌우될 것입니다.

결국 다양한 CBDC가 만들어 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상호운용성이 중요해 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글로벌한 무역과 금융의 본질은 국경 간의 결제로 국가간의 조정을 위하여 각국의 CBDC를 만드는 과정 속에 이러한 특성이 녹아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전세계가 공통된 기준을 사용하여 정보를 구축하기로 동의했기 때문에 인터넷은 정보 교환을 위한 세계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CBDC는 개방형 지불 프로토콜을 채택하고 중립적인 연결 자산을 사용함으로써 국경을 넘어 마찰 없는 가치 교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중앙 은행들은 CBDC의 성공을 제한하는 동시에 금융 시스템의 미래를 손상시켜 더욱 효과적인 화폐의 발전을 가져오지 못 할 것입니다.

CBDC의 주요 이점

속도, 효율,보안 향상

- 은행거래 불가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접근 확대
- 글로벌 금융 시장의 마찰 감소
- 서비스 개선을 위한 혁신 촉진
- 중앙은행의 법정화폐 통제력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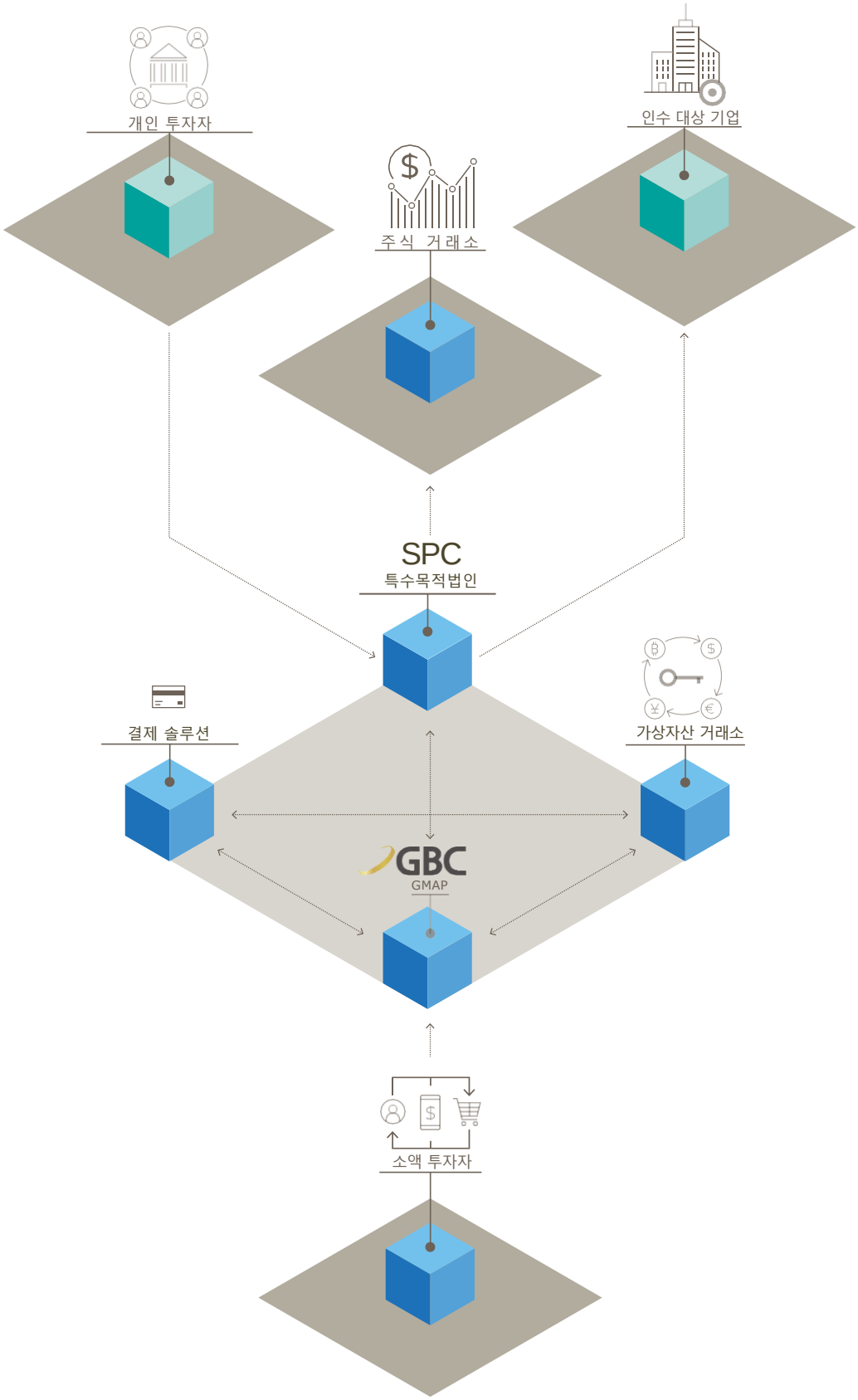
주요 과제 :

- 국제결제
- 신원 확인
- 비은행 채널 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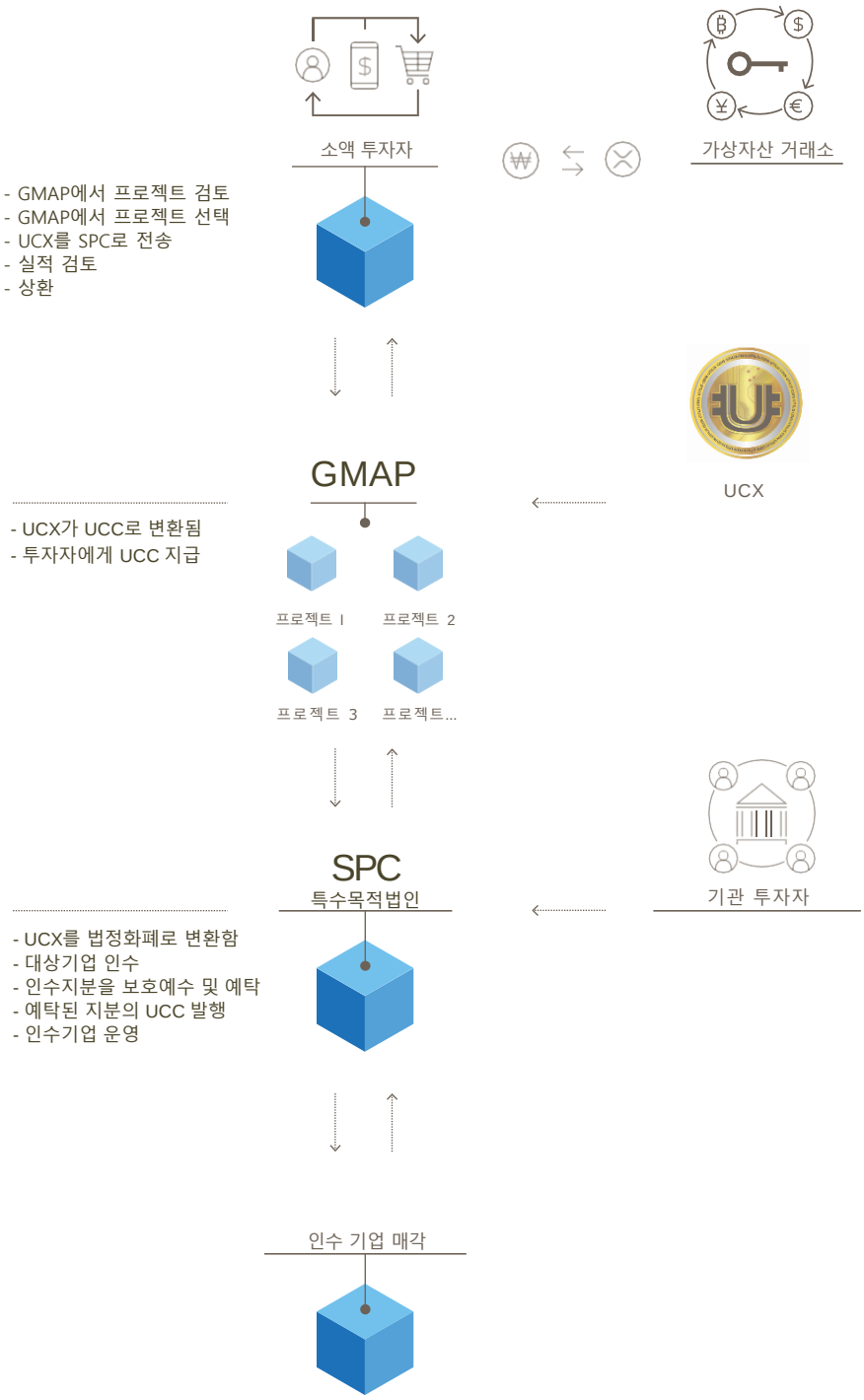
주요 대안 :

- 상호 운용성 보장
- 공공부문 민간협력 활성화
- 중립 중개 통화 통합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자본시장 생태계 구성



지비시코리아의
GMAP 설계도



사용 사례: 리플넷을 사용한 국경 간 결제

국경 간 결제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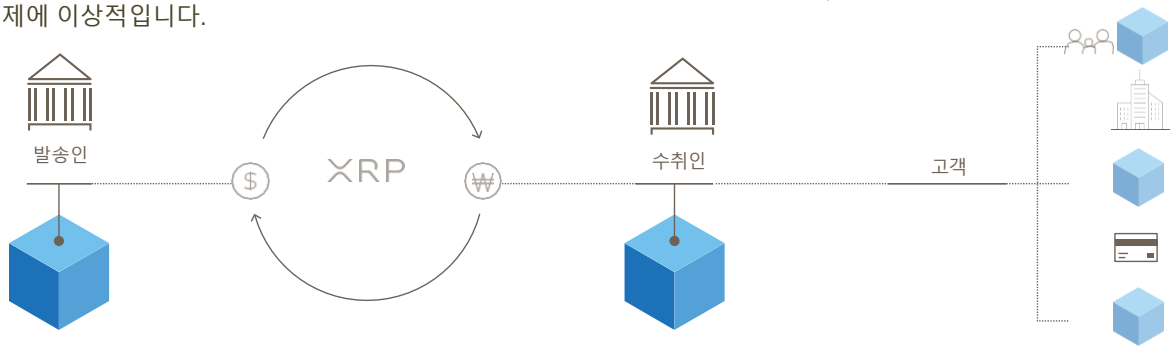
이 백서의 앞부분에서 설명했듯이 블록체인 기술은 유망한 돌파구로서 한국 경제의 많은 부문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보여주고 잇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술의 성공 여부는 실 사용 사례, 즉 현실 속의 문제해결 및 소비자와 최종 사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기술이 성숙함에 따라 다양한 사용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14페이지에서 한국에서 지비시코리아의 M&A 사용 사례를 살펴 보았고 여기에 또 다른 사례를 제공합니다. 국경 간의 지불은 비용이 많이 들고 장애가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러한 마찰의 대부분은 지금까지 기존 은행(코레스은행 이라고 함)의 영역인 국경 간 지불에 적용되는 절차상의 결과입니다.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에서 인용한 코레스은행의 정의는 "특정 통화에 대한 당좌 및 기타 부채 계정을 제공 하는 것과 자체 현금 청산, 유동성 관리, 단기 차입 및 투자를 위해 사용되는 뿐만 아니라 제 3자 지급 및 무역 금융에 사용되는 관련 서비스를 다른 금융 기관(계열사 포함)에 제공하는 것" 입니다.

이 정의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은행들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래처 관계(계정 기반 양자 관계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기업 및 소매 고객의 지불을 처리합니다. 광범위하게 확산되기는 했지만 코레스은행의 시장 구조는 주로 계정을 사전 자금으로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코레스은행의 지불 처리에 상당한 마찰, 지연 및 비용을 초래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뱅킹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소기업 및 소매 고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존 코레스은행 모델과 동일한 최종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디지털 자산은 AML/CFT 요구 사항을 그대로 준수하면서 최종 사용자에게 강력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다자간 기구들도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고 있는 더 빠른 국경 간 결제의 잠재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리플이 제공하는 국경 간 결제 솔루션인 리플넷은 단일 API를 통해 전 세계 수백 개 금융기관을 연결해 더 빠르고 더 저렴하며 더 신뢰성 높은 송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리플넷은 또한 디지털 자산 XRP를 사용하여 전통적인 자금 조달 메커니즘의 대안을 제공합니다. 즉 국경 간 거래에서 거래 중 유동성을 확보하는 유동성(ODL)계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유동성을 마련할 필요성을 줄이거나 심지어 없애 버리기까지 합니다. 리플넷 고객은 XRP를 사용하여 몇 분 만에 서로의 화폐를 연결하여 거래의 어느 쪽이든 현지 화폐로 빠르게 결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XRP는 다른 어느 디지털 자산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며, 확장성과 지속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글로벌 결제에 이상적입니다.



디지털 자산 분류법

서로 다른 접근 방식 비교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규제 기관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분류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 특별히 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정의가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하며, 우리는 그러한 자산이 특정 기술(예: 암호기법)과 관련해서만 정의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합니다. 다만 규제 목적상, "디지털 자산"과 같이 광범위한 항목으로 분류하되 그 후에 그들이 수행하는 특정 경제적 기능과 목적에 따라 세분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자산 분류에 대한 관련 문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린네식 분류법과 유사한 체계적인 시스템은 등장하지 않았으며[4] 많은 경우 경제적 목적과 기능보다는 자산이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되는지의 기술적인 내용에 따라 분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규제 기관이 디지털 자산의 기능과 경제적 목적에 따라 분류 체계를 개발할 것을 권장합니다.[5] 표 1은 디지털 자산마다 다양한 주요 사용 사례를 제시하며, 한 디지털 자산이 여러 종류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OECD는 FCA와 유사하게 디지털 자산을 3종류 즉, 결제토큰(암호화폐 포함), 보안토큰 및 유틸리티토큰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표 2는 몇 가지 예와 함께 OECD 분류 체계를 보여줍니다.

국가별로 규제 정의를 살펴보면 일본 금융 서비스청(FSA)은 2009년 지불 서비스법 (Payment Services Act 2009)에 따라 암호화 자산을 상품 구매, 상품 임대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지급수단으로 정의하고 전자적으로 기록되며, 법정 화폐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본 법률은 암호화 자산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ERTR(Electronically Recorded Transferable Rights)을 별도로 취급하여 ERTR을 증권형 토큰과 동등한 배당금 형태로 이익을 기대하여 발행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합니다.[6] 마지막으로 유틸리티토큰은 온라인 플랫폼에 액세스하거나 플랫폼내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됩니다.

영국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은 2019년 7월에 발행된 FCA 지침(FCA Guidance on Crypto assets)에 요약되어 있는 디지털 자산을 고유 구조와 설계된 용도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명확성을 제공했습니다.[7] FCA 지침에 따르면, 증권형 토큰은 "특정 투자와 유사한 권리와 의무를 제공하는 특정한 특성을 가진 토큰"으로 정의 되는데, 이는 FCA의 규제 대상이고 경우에 따라서 건전성 규제 당국(PRA)의 규제 범위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8]

이는 "규제된 지불 서비스를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교환토큰[9] 및 "소비자에게 현재 또는 미래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종종 사전 지불 바우처[10]와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는" 유틸리티토큰과 대조됩니다. 둘 다 FCA의 규제 범위를 벗어나는 "규제되지 않은 토큰"(즉, 특정 투자와 유사한 권리 또는 의무를 제공하지 않는 토큰)으로 간주됩니다.[11]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디지털 자산을 지불 서비스법(PS Act)에 의하여 규제되는 디지털 결제토큰(DPT),[12] 또는 증권선물법(SFA)에 따라 규제되는 자본 시장 상품으로서의 디지털 토큰으로 간주하는 영국과 유사한 접근을 택하였습니다.[13]

결제	가치 저장	스테이블 코인	유틸리티 코인	스마트 계약
기존 결제 시스템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전송을 지원하는 결제 토큰	디지털 가치 저장소	법정 화폐와 같은 안정적인 준비 자산에 가치가 고정됨	사용자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독점적 액세스 제공	자동 실행 가능한 사용자 맞춤 계약
XRP	BITCOIN	USD COIN	FILECOIN	ETHEREUM
BITCOINCASH	LITECOIN	TETHER	UCX	SOLANA

도표 1. 디지털 자산의 샘플 사용 사례

결제 토큰 (가상 화폐)	증권형 토큰 (자산 & 금융)	유틸리티 토큰 (소비자용)
기존의 법정 화폐(발행 정부의 지원을 받는 화폐)와 가장 유사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규정에 따라 유가 증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용도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거나 거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불 토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치 저장 및 가치 표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테이블코인 및 중앙 은행 디지털 통화(CBDC)가 포함됩니다.		이는 보유자가 특정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선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선불 또는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비트코인, XRP, ETHER 및 UCX 등이 있습니다.	예) SPICE, TZERO 및 BCAP	예) STORJ – P2P 네트워크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토큰, 또는 Brave 검색 엔진에서 사용자에게 검색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토큰 또는 지비시 코리아의 GMAP에서 UCC에 대한 보상을 위해 사용하는 기본 토큰 등이 있습니다.

도표 2. OECD 암호자산 분류

한국 블록체인 산업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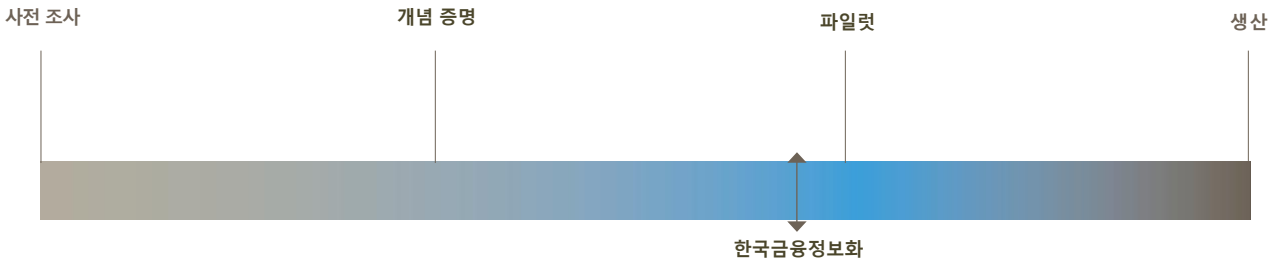
한국 금융 기관에 대한 설문 조사
한국은 블록체인 생태계 개발에 있어서 앞서 나가기 위해 필수 요소인 혁신과 기술력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활발한 금융 기술 산업과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인재 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자산 거래량에 있어 꾸준히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백서에서 제시된 현존하는 다양한 중요 요소들 외에도, 두 가지 핵심 영역이 신중하게 개척 되어야 하는 바 그것은 금융 기관의 참여와 스마트 규제 프레임워크 입니다.

옥스포드 메트리카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대한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들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 유수의 금융 기관 최고경영자(CEO)들과 회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집중 조사 설문지를 개발하여 배포하고, 조사 결과를 수집 해 추가적 설명이 필요한 경우 후속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었고, 블록체인 생태계의 발전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모든 응답자가 블록체인 기술을 주류 운영 시스템의 일부로 수용하는 데에 관심이 있어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블록체인 운영 체제 구현에 있어서 모든 응답자가 예비 연구 단계를 마쳤고, 응답자의 40%는 개념 증명을 수행하였으며, 60%는 파일럿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응답자 중 누구도 솔루션 출시와 함께 완전한 생산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단의 다이어그램은 연구부터 개념 증명 및 파일럿 출시를 거쳐 완전한 생산까지의 진행 범위를 보여줍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의 금융 산업이 전체적으로 상품 출시의 문턱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종 규제의 명확성 여부가 이들 기업이 생산 진출을 망설이게 하는 원인으로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들 기관들이 추구하는 사업 부문은 결제(80%) 분야에 크게 집중되어 있고 자본 시장(20%)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응답자 대부분이 파일럿 프로젝트에서 단 한 개의 사업 부문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모든 응답자는 결제를 위해 디지털 자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어떠한 특정 디지털 자산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20%는 XRP라고 답했고, 나머지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비특정 디지털 자산을 채택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가상 자산의 특징 중 신뢰성을 가장 유익한 것으로 꼽았고 두 번째로 평가된 것은 경쟁력 있는 환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호하는 디지털 자산 유형에 있어서는 CBDC가 가장 인기 있었고(90%) 비은행 스테이블코인(10%)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블록체인 경제의 주류 사업에 관한 국내의 주요 금융 기관들의 참여 욕구는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생산 과정에 돌입한 곳은 아직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가장 큰 관심 분야는 결제 솔루션으로 보여지며, 가장 인기 있는 잠재적 디지털 자산은 CBDC입니다. 금융 기관이 블록체인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규제의 명확성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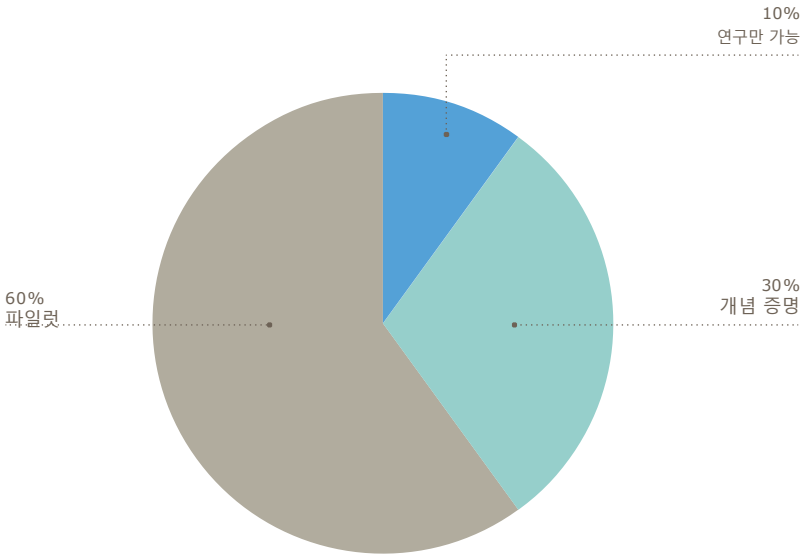


그림 3: 국내 금융기관의 블록체인 도입 진행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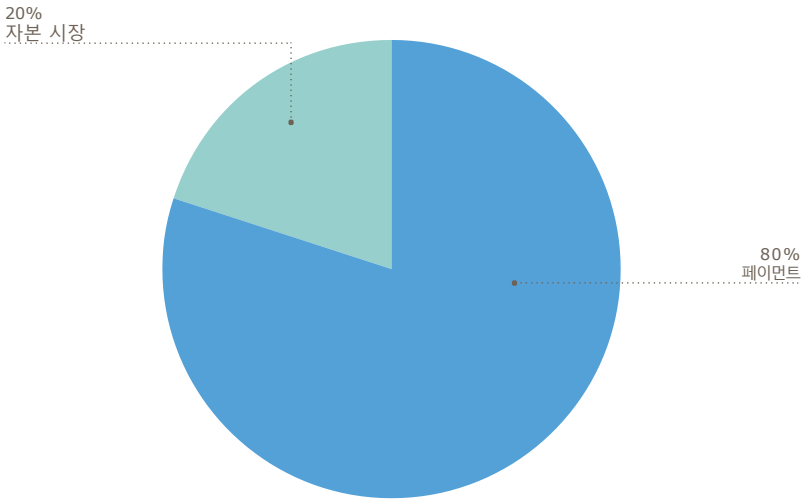


그림 4 : 국내 금융기관의 블록체인 도입 초기 사업부

정책 제안

본 백서는 금융 혁신에서 가치창출과 동시에 리스크 관리도 하는 스마트 규제를 강조하고 있는 바이며, 이를 충분히 달성 할 수 있습니다. 활발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기민하고 민감하게 위험관리를 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고 또한 혁신이 번성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칙'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감안하여, 한국에서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 합니다.

글로벌 모범 사례와 일치하는 디지털 자산 분류법 채택

특정 금융 정보법에 따른 "가상 자산"의 정의는 "디지털로 거래 및 양도 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디지털 토큰"을 아우르기 때문에 다소 광범위합니다. 글로벌 관행에 따라, 아래 설명된 대로 결제 토큰, 기능성(유틸리티) 토큰, 그리고 증권형 토큰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권고합니다.

- 결제 및 교환 토큰: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며 발행자에 대해 적용되는 권리가 없는 비법정 화폐이자 고유한 디지털 자산을 의미합니다.

- 유틸리티 토큰: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나 네트워크 사용 접근 권한을 위해 지불되는 디지털 자산을 의미합니다.

- 증권형 토큰: 주식, 사채, 증권 기반 파생상품 및 집합투자 체계와 같이 전통적인 기존 유동 자산의 권한이 반영된 토큰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분류 체계는 각각의 가상 자산과 관련 활동이 위험 분포의 어느 곳에 위치하는 지를 명확히 하여, 규제되지 않은 기술이 개발되고 투자도 늘어나도록 가능성을 완화시켜줄 것입니다.

위험에 민감한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구현

특정 금융 정보법에 따르면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가상 자산 거래 서비스 제공자, 가상 자산 보관 및 관리 서비스 제공자 및, 구매 및 판매, 교환에 종사하는 가상 자산 디지털 지갑 서비스 제공자, 가상 자산 및 가상 자산 거래의 양도, 보관 및 관리 또는 중개, 혹은 중개업을 포함한다"고 정의 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가상자산의 정의와 유사하게 광범위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디지털 자산을 취급하는 솔루션은 무엇이든지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로 분류될 수 여지가 있기에, 어떠한 솔루션이 아무리 낮은 위험도를 갖고 있을지라도 한국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등록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위험에 민감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없으면 해당 부문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권고해 드린 디지털 자산 분류법 외에도, 한국의 정책 입안자와 규제 기관은 해당 부문의 확실성을 제공하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적절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규제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은 개괄적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규제 프레임워크는 기술에 구애받지 않아야 하며, 특정 기술만 명시적으로 혹은 달리 승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을 솔루션으로 사용하는 금융 서비스가 기존의 구조를 포함하는 금융 서비스와 다르게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술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국 가	AML/CFT 요구사항	라이센스 요구 조건
호주	YES, 호주 법적 규제상 필요	현재 중개업자 라이선스 등록을 위한 호주 규제 프레임워크 협의가 예상됨
아부다비 글로벌 시장(ADGM)	YES	YES
유럽 연합	MICA(가상자산 시장 규제안) 발의됨	MICA(가상자산 시장 규제안) 발의됨
일본	YES	YES
뉴질랜드	YES	현재 라이센스 요구 사항 협의 진행중
싱가폴	YES	YES
영국	YES	YES

도표 3. 비교 규정

- 디지털 자산의 역동성을 감안할 때 지시적인 규제는 곧 쓸모 없는 것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시적인 규제는 의도치 않게 혁신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지시적이고 아주 힘든 절차의 규제가 아닌 시장 참가자를 규제 및 정책 목표로 인도할 수 있는 원칙 기반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고려할 것을 권고합니다.

- 규제 프레임워크는 규제를 정당화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위험이 내포된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이 충분히 설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동시에 잠재적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단순하고 안전하며 접근 가능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규제 프레임워크가 규제 확실성과 소비자 보호를 제공하는 동시에 미래 지향적이며 유연하게 되기를 권고합니다

디지털 자산 혁신 샌드박스(규제 특례) 육성의 필요성

혁신 규제 특례는 시장 참가자가 규제 감독을 받는 동안 통제된 환경에서 최종 사용자와 함께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 서비스 및 사업 모델을 시험할 수 있는 공적 규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한국 규제 당국은 현재 규제 특례 환경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어떠한 기회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혁신을 장려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규제 프레임워크의 개발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혁신 규제 특례가 필요하며, 적어도 본 백서에서 강조된 것처럼, 최소한 국경 간 결제 및 자본 시장과 같은 특정 사용 사례에 대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장려되어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필수적인 민관 협력

끝으로,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는 규제 기관과 시장 참여자 간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민관 협력은 업계와 소비자 모두를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정책 결과로 이끌 것 입니다. 규제 기관과 업계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해 합리적이고 전체론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협업 포럼을 실시한다면 규제 명확성을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것 입니다.

결론

본 백서에서 권장하는 정책 제안 사항은 한국의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의 특성에 대해 산업, 시장 및 소비자에게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백서에서 논의된 각각의 정책 제안이 개별적으로 구현되거나, 복합적으로 함께 구현된다면 충분한 보호 장치를 보장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림 출처

그림 1:	옥스포드 메트리카
그림 2:	옥스포드 메트리카 & 리플
그림 3:	옥스포드 메트리카
그림 4:	옥스포드 메트리카

도표 출처

도표 1:	리플
도표 2:	OECD, 가상 화폐 과세: 세금 처리 및 새로운 정책 이슈에 대한 개요, 2020년 10월, 페이지 12.
도표 3:	Australia: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21C00243 Abu Dhabi: https://www.adgm.com/documents/legal-framework/-guidance-and-policyfsra/ guidance-on-regulation-of-virtual-asset-activities-inadgm. pdf EU: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0PC0593 Japan: http://www.japaneselawtranslation.go.jp/law detail/?id=3707&vm=04&re=02 New Zealand: https://www.legislation.govt.nz/act/public/2009/0035/latest/DLM2140720.html Singapore: https://sso.agc.gov.sg/Acts-Supp/2-2019/Published/20190220?DocDate=20190220 UK: https://www.fca.org.uk/publication/policy/ps19-22.pdf

각주

1:	Coinmarketcap.com
2:	All references in this paper to Korea refer to the Republic of Korea.
3:	https://www.fsc.go.kr/eng/pr010101/22325
4:	Regulation of Crypto Assets (imf.org).
5:	https://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xe/Documents/finance/me_Digital-Custodian.Whitepaper.pdf
6:	For the purposes of this paper, we are relying on the following translation: http://www.japaneselawtranslation.go.jp/law/detail/?id=3707&vm=04&re=02
7:	https://www.fca.org.uk/publication/policy/ps19-22.pdf, Guidance on Cryptoassets: Feedback and Final Guidance to CP 19/3.
8:	FCA Guidance, Paragraph 1.9, page 4.
9:	FCA Guidance, paragraph 2.15, page 11.
10:	FCA Guidance, paragraph 2.21, page 13.
11:	FCA Guidance, Appendix 1, paragraph 43, page 35 and paragraph 50, page 36.
12:	https://sso.agc.gov.sg/Acts-Supp/2-2019/Published/20190220?DocDate=20190220, Republic of Singapore Payment Services Act 2019
13:	https://sso.agc.gov.sg/Act/SFA2001, Republic of Singapore Securities and Futures Act (chapter 289)

옥스포드 메트리카의 고객사

BANKING

BNY Mellon
Credit Suisse
Deutsche Bank
Invesco
Schroders
Templeton & Phillips
UBS

ENERGY & MINING

BP
De Beers
Exxon Mobil
Gazprom
Gold Fields
Royal Dutch Shell

FOOD

DongA One
General Mills
Nestlé

FOUNDATIONS

John Templeton Foundation
TWCF

HEALTH CARE

Baxter
Bristol-Myers Squibb
Johnson & Johnson
Merck Serono
Natura
Novartis
Novo Nordisk
Solvay

INDUSTRIAL

ABB
Aker Solutions
BAA
BAE Systems
General Electric
INI
Jardine Matheson
Kone

INSURANCE

AIG
Aviva
FM Global
If
ING Group
Munich Re
OIL
RSA
SCOR
Swiss Life
Swiss Re
Zurich Insurance Group

PROFESSIONAL SERVICES

Accenture
Aon
Ashurst
Blue Rubicon
Deloitte
Edelman
EY
Freehills
Hill & Knowlton
Ince & Co
KBC Peel Hunt
Kenyon International
Marsh
Ogilvy PR
OTC Markets Group
Porter Novelli
PriceWaterhouse Coopers

PUBLISHING

Reed Elsevier

RETAIL

Huhtamaki
Tesco

TECHNOLOGY

Cisco Systems
Green ICN
Hitachi
IBM
ICN Telecom
Infosys
Intel
KNTV
Oracle
Tencent
Xilinx

TRANSPORT

P&O Ferries

면책조항

본 문서는 특정 수령인(들)만의 독점적 사용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리플, 지비시코리아 그리고 옥스포드 메트리카는 그들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 구성원 어느 누구도 해당 정보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작성자들은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본 문서의 예측가능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모든 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으로부터 배제됩니다. 따라서, 본 문서는 이 면책조항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수령인 스스로 위험 부담을 지는 것입니다. 수령인은 뒤이은 모든 수령인에게 이러한 면책조항의 내용을 알려야만 합니다.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증권 매매의 추천이나 권유가 아닙니다.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의 목적으로 제작된 요약본으로 이 안에서 논의된 내용에 관한 완전한 분석이 아니며, 사용자는 법적 자문으로 의존해서는 안됩니다.